

불교계 노인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발전방안

오 철 우*

신내노인복지센터

【요약】

한국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불교계 역시 1990년대 이후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불교 이념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이론적 연구가 많았지만, 현재는 실효성과 실제성에 바탕을 둔 불교복지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더해서 불교계는 그간의 승려복지와 교단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양적 팽창에서, 실제 수요자들이 질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는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불교계의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불교노인복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G구 소재 불교노인복지시설 1개소의 만 60세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자 195명을 편의표집했다. 편의표본추출을 활용해 시설이용자의 시설만족도,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희망 프로그램 등을 추출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를 활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1차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는 독립표본 t-test, 그리고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했다.

주제어: 불교 노인복지, 노인 교육프로그램, 편의 표본추출, t-test

* 신내노인복지센터 관장, dharmauini@hanmail.net

I. 서론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한국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문제는 선거 때마다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수요자가 증대하면서 사회복지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노인복지가 지역복지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 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추가되었다.

이 중 노인복지정책은 국가구성원의 가치관과 전통, 종교 등 문화적 요소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노인복지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양적 측면과, 수요자의 만족과 질적 삶의 유지라는 질적 측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에 발맞춰 불교계 역시 노인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불교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불교복지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구체적 실효성보다는 불교 이념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이론적 연구가 팽배했다. 약 3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많은 불교사회복지시설이 생겼고, 불교계 역시 실효성과 실제성에 바탕을 둔 불교복지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더해서 승려복지와 불교교단의 복지 중심에서 재가자들을 위한 불교복지, 노인복지, 불교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양적 팽창을 더해왔다. 이제는 실제 수요자들의 질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는, 즉 소프트웨어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불교계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실제 불교노인복지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한다.

II. 불교계의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2.1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현재 한국사회는 노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들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는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이와 함께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다.¹⁾ 그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크게 정치적, 사회 환경적, 사회 문화적 시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재원 창출을 위한 예산마련 정책이 대표적이다.²⁾ 둘째,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노인인구의 증가와 달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의 변화를 언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노령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은 2019년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4.9%이고, 2019년에서 2067년 기간 사이에 3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³⁾ 이는 1980년 3.9%, 1995년 5.9%, 2000년 7.3%, 2005년 9.1%⁴⁾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족의 구성원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언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형태(노인부부, 노인독신 통합)는 전체 가구형태 중 1994년 39%, 1998년 41.7%, 2004년 51.2%, 2011년 68.1%로 급증하

1) 백종만(1994), 박광덕(1997), 석재은(1999) 등이 사회복지를 비용부담주체와 생산주체로 모형분류를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김순양(1997), 정경희(2003) 등은 노인 복지서비스의 실효성과 기본방향에 대한 정책을 공론화시켰다. 이후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보다 세분화되어 강혜규(2003)는 노인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해, 강창현(2003)은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순일, 고경환 등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재정확보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복지를 별도로 분리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서비스 공급역할의 주체와 모형분류가 주요 연구테마였다.

2) 그동안 한국의 노인복지 예산은 역대 정권이 국방과 경제성장 정책과 상충의 관계 속에서 복지예산을 마련하거나, 정당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노인(사회)복지정책을 결정했다. 1980년대 이후 서구가 중앙집권적 복지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국에서도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사회복지서비스의 분권화가 급속도로 이행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기피하거나 복지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지역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 등 현실적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3) 통계청 보도자료,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2019년 9월 2일).

4) 통계청, 〈고령자통계〉(2004).

면서 노인단독가구가 노년기의 대표적 가구형태가 되었다.⁵⁾ 이는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부양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국가와 사회가 노인부양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와 지역사회가 단순부양이 아닌, 노인들의 욕구-경제활동, 질병, 사망, 질적 삶의 유지 등-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근간으로 불교계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선 불교적 사회복지의 보살사상, 자비, 이타심 등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불교적·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불교사회복지의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들은 최근 10여 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불교사회복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본 장에서는 간략히 소개하겠다.⁶⁾

첫 번째는 일반사회복지의 범주 안에 불교사회복지가 포함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개념적으로는 불교사회복지를 지향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불교가 갖는 정체성이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불교사회복지 안에 일반사회복지가 포함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일반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불교복지를 지향한다. 세 번째는 양측이 공통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 독자적인 개별성을 갖는 유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는 양측이 공통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개별성만 갖는 유형이다. 이 경우 불교가 현실사회를 수용하지 못한 채 존재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시점들을 인지하면서 대표적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겠다.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三永松信(1965)은 사회복지를 종교의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보았고, 中垣昌美(1991)는 불교사회복지의 생활개선을 돕고, 개인과 가족의 자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長谷川匡後(2000)는 불교에 기초한 복지가 불교복지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신섭중(1992)은 불교사회복지가 불교를 주체로 하는 사회적 실천이라 했고, 이혜숙(1995)은 불교사회복지를 목적 개념과 실천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했다. 권경임은(2004)은 불교사회복지의 개념을 네 가지로 세분화시켜 정의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불교사회복지의 불교의 실천사상을 복지이념으로 하고 불교계의 구성원들과 신도들의 자기구현을 돕는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서울: 보건복지부).

6) 권경임, 『불교사회복지실천론』(서울: 학지사, 2004), 32-36쪽.

2.2 불교노인복지에 대한 시선

일반적으로 불교노인복지의 주체는 불교종단과 불교신도로 보고, 역할은 사회적 장애나 고령자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모든 고령자들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역시 노인복지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다. 불교노인복지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관심은 승가복지나 다른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했다.⁷⁾ 하지만 불교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95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이다. 재단 출범과 함께 불교계는 체계적인 시설 위탁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불교신도들의 고령화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출범과 함께 주요 종단들, 지방의 대형 사찰들이 불교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종교단체별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는, 기독교가 543개소(43.5%), 불교 314개소(25.0%), 천주교 267개소(21.2%), 기타종교 143개소(10.3%)로 나타났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325개소가 운영되며, 기독교 119개소(36.61%), 불교 93개소(28.61%), 천주교 67개소(20.61%), 기타 46개소(14.15%) 순으로 나타났다.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2012통계에 따르면, 조계종 복지 시설은 전체 958개소이다. 이 중 노인복지시설이 385개(4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시설이 약36.8%를 점유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양로원, 실버타운, 요양원, 그룹 홈 등)과 이용시설(노인복지관, 노인 회관,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노인상담기관, 경로당, 노인대학, 무료병원, 무료식당 등)과 무료시설(무료병원, 무료식당)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개별기관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실제 조계종의 각 교구본사가 직할노인복지시설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받은 단위사찰은 통도사와 범어사를 비롯해 15개소 안팎에 불과하다.

현재 불교계의 노인복지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 법인과 개별기관을 나눌 수 있는데, 불교계는 후자가 더 많다. 이 경우 수급대상자 선정이나 재원 마련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구본사에서는 개별 활동시설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불교계가 운영주체에 의거해 불교노인복지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직

7) 불교노인복지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자(1994)와 김덕만(1994)은 노인복지를 불교경전에 의거해 접근했는데, 이들은 이념이나 도덕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시각으로 실제적 활용론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었다. 조용신(1996)과 박남섭(1996)은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시설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론화시켰고, 김응철(1996)·김국현(1996)·김두식(2005) 등은 노인복지에 대한 실효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켰다.

8)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로격계 질환 등 실태조사보고서』(서울: 보건복지부, 2010)

할형·독립형·협조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⁹⁾ 직할형은 종단이나 불교사회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종단이나 단체의 한 조직부서로 두는 형태이다. 독립형은 종단과는 무관하게 개인(출가자, 신도)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협조형은 종단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종단이나 사찰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조보각 등은 불교노인복지의 방향성을 고령자들의 물질적·정신적 고통 극복,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 실천성과 지속성의 유지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¹⁰⁾ 먼저 고령자의 물질적·정신적 고통 극복은 고령자 전체를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식해 일반사회복지보다 복지의 폭을 넓힌 시각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일반사회복지가 복지대상의 최소단위를 개인으로 보는데 반해, 불교노인복지의 최소단위를 사회나 사회연대로 보고 있다. 셋째, 실천성과 지속성의 유지는 불교노인복지의 실천의 동기를 자신의 내적 수양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천과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현재 불교계는 불교의 대중화와 지역사회연대사업의 일환으로써 노인복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지방의 사찰들은 지역사회와 연대해 노인복지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는 지역사회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과 사찰의 상생을 도모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III. 불교계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과 발전방안

3.1 불교계 노인복지시설과 운영현황

본 장에서는 현재 불교노인복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욕구를 파악했다. 대상자는 서울시 G구 소재 불교노인복지시설 1개소의 만 60세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자 195명을 편의표집했다. 편의표집을 위해 우선 기관 내에서 본 조사의 필요성과 연구 참여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들에 한하여 지난 2018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편의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문조사 진행방식으로 효율

9) 김정용, 「한국 현대불교 고령자 복지연구」(일본 불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0) 조보각 외 3인, 『불교사회복지개론』(서울: 운주사, 2012), 149-151쪽.

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선택했다.

조사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문제,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여가성향, 여가생활 만족도, 프로그램 효과성, 시설의 서비스 질, 희망 프로그램 등을 담도록 설계했다.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조사 시간이 더 길게 요구되며, 집중력이 저하되어 쉽게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도구는 가능한 문항이 짧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먼저 SPSS를 활용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여가성향 및 프로그램 효과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 그리고 일원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였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195명의 노인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성이 17.4%(34명) 그리고 여성이 82.6%(161명)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최소 61세에서 최대 89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73.25세(표준편차=6.314)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31.8%(62명), 70대 50.8%(99명), 그리고 80대 17.4%(34명)로 각각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동거가족 형태는 혼자가 26.7%(52명), 부부만이 44.6%(87명), 본인(부부)+미혼자녀가 13.3%(26명), 본인(부부)+기혼자녀가 13.8%(27명), 그리고 기타가 1.5%(3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성별분포는 남자가 113명(22.8%), 여자가 382명(77.2%)로 여성이 남성보다 54.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내의 연령은 만60세 이상 64세 미만이 34명(6.9%), 만65세 이상 69세 미만이 95명(14.4%) 만70세 이상 74세 미만이 154명(28.2%), 만75세 이상 79세 미만이 139명(36.9%), 80세 이상이 73명(10.8%)이었다. 조사대상자는 만75세 이상 79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만65세 이상부터 79세 미만까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단, 만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이용자의 수가 줄거나 정체되어 있어 복지시설의 주이용자는 만70세 이상에서 79세 미만이 가장 많다. 따라서 70세 이상 참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65세 이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30.4%(5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25.3%(49명), 중학교 졸업 21.6%(42명), 미취학 11.9%(23명), 대학 이상 10.9%(2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이 2.6%(5명), 나쁨이 16.0%(31명), 보통이 43.3%(84명), 좋음이 25.3%(49명), 그리고 매우 좋음이 12.9%(25명)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2.6%(5명), 약간 어려움이 18.5%(36명), 보통이 56.9%(111명), 약간 여유가 있음이 18.5%(36명), 매우 여유가 있음이 3.6%(7명)로 응답했다. 주거소유는 자가 비율이 75.1%(14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세가 15.0%(29명) 그리고 월세가 5.7%(11명)로 조사되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16.4%(32명),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52.8%(103명), 아파트가 26.7%(52명), 단칸방(쪽방, 고시원 등)이 3.6%(7명), 기타가 0.5%(1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여부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2%(18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이 90.8%(177명)로 나타났다.¹¹⁾

11)

구 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범위
성별	남	34	17.4%	-
	여	161	82.6%	
연령대	60대	62	31.8%	73.25(6.314) (최소 61- 최대 89)
	70대	99	50.8%	
	80세 이상	34	17.4%	
동거가족	혼자	52	26.7%	-
	부부만	87	44.6%	
	본인(부부)+미혼자녀	26	13.3%	
	본인(부부)+기혼자녀	27	13.8%	
	기타	3	1.5%	
학력	미취학	23	11.9%	-
	초졸이하	59	30.4%	
	중졸	42	21.6%	
	고졸	49	25.3%	
	대학이상	21	10.9%	
건강상태	매우 나쁨	5	2.6%	-
	나쁨	31	16.0%	
	보통	84	43.3%	
	좋음	49	25.3%	
	매우 좋음	25	12.9%	
생활수준	매우 어려움	5	2.6%	-
	약간 어려움	36	18.5%	
	보통	111	56.9%	
	약간 여유	36	18.5%	
	매우 여유	7	3.6%	
주거소유	자가	145	75.1%	-
	전세	29	15.0%	
	월세	11	5.7%	
	무상 + 기타	8	4.2%	
주거형태	단독주택	32	16.4%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03	52.8%	
	아파트	52	26.7%	
	단칸방(쪽방, 고시원 등)	7	3.6%	
	기타	1	0.5%	
보호구분	기초생활수급자임	18	9.2%	-
	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77	90.8%	

더해서 참여자들이 여가만족의 경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시행했다.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가만족도 부분에서는 참여자의 연령대, 동거가족, 학력,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과는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여가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해($p < .01$) 남성노인이 4.21점, 여성노인이 4.65점이 나왔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여가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이용자의 여가만족도〉(N=195)

구분		비도	여가만족도	통계값(유의도)
성별	남	34	4.21	t=3.201(.002)
	여	161	4.65	
연령대	60대	62	4.56	F=.008(.992)
	70대	99	4.58	
	80세이상	34	4.56	
동거가족	독거노인	52	4.69	F=1.199(.313)
	노인부부	87	4.57	
	노인부부+자녀	26	4.38	
	노인단독+자녀	27	4.44	
	기타	3	5.00	
학력	미취학	23	4.47	F=1.393(.238)
	초졸 이하	59	4.58	
	중졸	42	4.71	
	고졸	49	4.49	
	대학 이상	25	4.58	
건강상태	매우 나쁨	5	4.80	F=.899(.466)
	나쁨	31	4.45	
	보통	84	4.50	
	좋음	49	4.65	
	매우 좋음	25	4.72	

동거가족	독거노인	52	3.26	F=1.090 (.363)	3.92	F=1.610 (.173)	3.80	F=1.611 (.173)	4.17	F=.196 (.940)	4.33	F=.410 (.801)	4.29	F=.377 (.825)
	노인부부	87	3.56		3.98		3.77		4.54		4.57		4.56	
	노인부부 + 자녀	26	3.67		3.68		3.62		4.25		4.38		4.37	
	노인단독 + 자녀	27	3.20		3.63		3.44		4.18		4.27		4.27	
	기타	3	3.50		3.91		3.78		4.14		4.30		4.25	
학력	미취학	23	3.17	F=1.095 (.360)	3.69	F=.789 (.536)	3.51	F=1.452 (.219)	4.17	F=1.424 (.228)	4.31	F=3.869 (.005)	4.28	F=2.429 (.049)
	초졸이하	59	3.66		3.99		3.85		4.08		4.06		4.08	
	중졸	42	3.54		3.88		3.71		4.25		4.42		4.32	
	고졸	49	3.57		3.90		3.72		4.28		4.49		4.43	
	대학이상	25	3.54		3.76		3.56		4.22		4.25		4.28	
건강상태	매우나쁨	5	3.20	F=1.017 (.400)	3.95	F=.1200 (.312)	3.49	F=1.214 (.306)	4.17	F=1.243 (.294)	4.24	F=1.041 (.388)	4.24	F=1.846 (.122)
	나쁨	31	3.32		3.98		3.74		3.90		3.96		3.99	
	보통	84	3.52		3.74		3.62		4.45		4.52		4.50	
	좋음	49	3.70		3.96		3.79		4.20		4.38		4.33	
	매우 좋음	25	3.66		4.03		3.90		4.18		4.28		4.26	
생활수준	매우나쁨	5	3.40	F=1.501 (.203)	4.30	F=1.414 (.231)	3.92	F=1.044 (.386)	4.07	F=1.437 (.223)	4.20	F=.588 (.672)	4.16	F=1.057 (.379)
	나쁨	36	3.31		3.85		3.62		4.40		4.45		4.52	
	보통	111	3.51		3.79		3.67		4.60		4.60		4.64	
	좋음	36	3.81		4.03		3.87		4.13		4.30		4.25	
	매우 좋음	7	3.85		4.21		3.92		4.13		4.27		4.25	

*p<.05, **p<.01, ***p<.001

3.2 불교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기관의 만족도 중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하겠다. 조사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으로 편의표본추출을 활용하였다.¹²⁾ 먼저 조사대상자가 다른 복지기관을 포함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간은, 5년 이상(26.2%)이 가장 많고, 1년 이상-5년 미만(각 21.5%), 1년 미만(16.0%), 전혀 없다(13.0%), 무응답(1.8%) 순이었다. 단, 2018년도에는 5년 이상의 장기학습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그만둔 것으로 나

12) 사회복지기관은 모집단의 특성과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어야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비확률표본추출을 많이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변화하는 이용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들의 프로그램에 기본변수로 설정하고, 시설이용 프로그램과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부여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시설 및 기자재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 정도를 종속변수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한 후, 표준편차를 내었다.

왔다.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 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약 30%가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건강증진, 교양교육, 취미 여가, 자율수강, 실버아카데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62.1%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양교육과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48.5%, 자율수강이 16.9%, 실버아카데미가 6.2% 순으로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다. 프로그램 유형별 만족도는 4.18점에서 4.83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자율수강이 4.83점(표준편차=.40), 실버아카데미가 4.76점(표준편차=.369), 교양교육과 취미여가가 4.67점(표준편차=.61), 건강증진이 4.18점(표준편차=.40)의 평균 만족도 점수(5점 만점)를 보였다.

〈교육프로그램 이용만족도〉

구 분	참여		만족도 환산(5점 만점)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건강증진	121	62.1%	4.18	.40
교양교육 및 취미여가	75	48.5%	4.67	.61
자율수강	33	16.9%	4.83	.40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댄스체조, 실버댄스, 웰빙요가 등이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이들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서 4.50점에서 4.96점으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구 분	참여		만족도 환산(5점 만점)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웰빙요가	30	15.4%	4.87	.34
실버댄스	32	16.4%	4.59	.75
레크리에이션	21	10.8%	4.71	.64
탁구	16	8.2%	4.88	.50
발마사지	24	12.3%	4.92	.28
댄스체조	40	20.5%	4.83	.38
난타봉사단	11	5.6%	4.82	.60

난타기초	15	5.1%	4.80	.42
탈춤	11	5.6%	4.91	.30
고전무용	24	12.3%	4.96	.20
장구	6	3.1%	4.50	.83
에어로빅	23	11.9%	4.87	.45
리듬댄스	20	10.3%	4.80	.52
남성요가	9	4.6%	4.67	.50

교양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은 비교적 영어와 중국어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본 조사에 참여 비율이 높게 나왔다. 교육프로그램 만족도(5점 만점)는 4.08점에서 5.0점으로 교양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반과 건강강좌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5.0점으로 참여자가 모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3년간 참여도가 가장 높은 교육 분야의 컴퓨터교육이었다.¹³⁾ 하지만 2018년 컴퓨터교육 수강자가 줄고 2018년에 새로 신설된 스마트폰 교육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교양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 만족도〉

구 분	참여		만족도 환산(5점 만점)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영어(기초/ 중급)	22	11.3%	4.59	.59
일어(기초/ 중급)	10	5.1%	4.80	.42
중국어	18	9.2%	4.72	.46
스마트폰활용반	17	8.7%	5.00	.00
건강강좌	4	2.1%	5.00	.00
하모니카	13	6.7%	4.08	1.11
미술	11	5.6%	4.82	.40
서예교실	11	5.6%	4.82	.40

13) 컴퓨터 교육은 2016년 45명, 2017년 50명, 2018년 18명으로 누적인원이 총 113명이다. 단, 매년 복수참여자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인원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교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인기 프로그램의 수강인원 제한과 협소한 장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¹⁴⁾ 연장선상에서 조사 참여자들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 증설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의견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는데 시간이 중복되면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비교적 높은 연령대의 분들은 관절에 무리 없이 배울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을 희망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노인복지 교육프로그램 발전방안에 대한 몇 개의 제언을 하겠다. 먼저,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규 교양교육프로그램 개설이 시급하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중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무용, 외국어, 음악프로그램(하모니카, 오카리나), 캘리그래피 등 단순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양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소양과 참여활동이 가능한 교양교육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연령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설 이용자의 연령대가 해마다 높아지고 연령별 인원이 비슷해지고 있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70세부터 80세 사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70세 이상의 이용자들은 건강증진프로그램보다는 교양교육 프로그램과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선호했다. 특히 악기연주와 여행에 도움이 되는 어학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더해서 60대 신규 이용자들이 시설에 대한 거부감, 혹은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특성화프로그램, 소수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각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프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컴퓨터 수업이었다.

14)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선사항과 문제 제기는 지난 3년간 조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프로그램 개선사항〉(2016-2018년)

	2016(빈도)	2017	2018
프로그램 증설	5	8	5
강의기간 조정	3	-	-
수업시간 조정	2	3	3
인원조정	3	5	
강사교체	2	-	
시설보강	2	4	8
기타	1	1	1

하지만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컴퓨터 수업은 2016년 45명, 2017년 50명에서 2018년 18명으로 급격한 하락을 했다. 여기에는 컴퓨터 수업이 해마다 반복되어 수준별 수업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동일한 수업을 하고 있어 희소성과 관심도가 하락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수업의 호응도가 급부상한 것은 사회적 흐름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더해서 본고의 조사대상 기관이 불교노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 물론 시설이용자가 다양한 종교성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종교성을 강하게 부각시킬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우려는 있다.¹⁵⁾ 이러한 우려를 뒤로 하고 불교와 친근한 프로그램을 찾는다면 아마 요가일 것이다. 요가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종교성을 없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교계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낸 명상요가 프로그램 개발 또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요가의 활동성과 명상의 자아 컨트롤은 노년기의 정신과 신체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각 종교별 죽음을 대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자아통합감을 높이고, 죽음불안을 낮추는 데 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실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죽음불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현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유산상속법, 유언 작성 등 현실적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이웃종교를 포함한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방안을 개발해 노령자들의 정신적, 현실적 죽음준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불교노인복지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식사지원·경제적 지원·일상생활 지원·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양적 지원 사업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프로그램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지만 다른 지원 사업들과 비교하면 동등하게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금까지 많은 시설들이 양적 팽창과 지원에 집중한 결과도 있고, 각 시설별 특징점을 가진 교육프로

15) 조사대상자들의 종교분포는 불교가 25.0%, 기독교 32.3%, 무교 17.7%, 천주교 15.3%, 기타 9.7% 순으로 분포되었다.

16) 현은민, 「노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가족관계학회지』제10권 2호(서울: 한국가족관계학회, 2005), 31-56쪽.

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서울시 G구 소재 불교노인복지시설 1개소의 만 60세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18도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불교노인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교육프로그램이 이용자 중심의 성과 관리체계를 설계된다면, 장기학습자들은 습득한 학습을 활용하여 신규 이용자들의 멘토·멘티 관계 형성 및 자원봉사자가 되어 센터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경임, 『불교사회복지실천론』(서울: 학지사, 2004).
- 백종만,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유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공동생산 방안 고찰: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제9권제4호(서울: 한국행정학회, 1997).
-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제31권제4호(서울: 한국행정학회, 1997).
- 강창현,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전달네트워크의 실험적 설계: 노인보건복지의 경우」 『한국행정논집』제15권제2호(서울: 한국정부학회, 2003).
- 강혜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 『보건복지포럼』제76호(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정경희,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 『보건복지포럼』제76호(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박순일 외 1인, 「한국의복지재정규모및구조분석」 『보건복지포럼』제90호(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현은민, 「노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제10권 2호(서울: 한국가족관계학회, 2005).
- 통계청, 〈고령자통계〉(20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서울: 보건복지부, 2005).
- 통계청 보도자료,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9년 9월 2일

원고접수일: 2019년 11월 22일 심사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

연구자소개: 오철우

① 전공: 불교사회복지 / 소속과 직위: 신내노인복지센터 관장

② 관심영역: 불교사회복지, 불교학

③ E-mail: dharmauini@hanmail.net

Abstract

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the Education Programs for
Welfare for the Aged in the Buddhist Community

Oh, Cheolu

Sinnae Senior Welfare Center

Welfare for the aged is an important issue that our society has to solve at the present time when Korean society has already entered an aging society. The Buddhist community also started to have an interest in welfare for the aged since the 1990s. There were lots of theoretical studies that looked at the social welfare in terms of the ideology of Buddhism in those day, but the direction of studies has turned into the Buddhist welfare based on effectiveness and reality at present. In addition, the Buddhist community is striving for qualitative growth which focuses on developing a variety of program to enhance the qualitative satisfaction of actual demanders out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augmentation of the monk welfare and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within the religious body, etc. during the period.

In this article , a satisfaction survey on the programs which are practically underway at the Buddhist welfare centers for the aged was conducted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welfare for the aged in the Buddhist commun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ith convenience sampling were 195 program participants aged 60 and over at one Buddhist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located in G-gu, Seoul City. Facility satisfaction degree of the facility users, education programs' effectiveness and desired programs were extracted by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The primarily used data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ulation analysis through SPSS. And then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ogram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Key words: welfare for the aged in the Buddhist community, education program for the aged, convenience sampling, t-test